

# 광주·전남 장애인 체육스타들 '메달 사냥' 나선다

전국장애인체전 오늘 개막  
 광주 한자릿수 순위 진입 목표  
 사격 김근수·탁구 김영건 등 기대  
 전남 축구·남녀좌식배구 강점  
 육상 이미옥 6년연속 3관왕 도전



탁구 김영건



육상 이미옥



전남 장애인 남·녀배구팀

광주·전남 장애인 체육스타들이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광주시, 전남도 장애인 선수단이 19~24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다.

광주 선수단은 406명(선수 288명, 임원 및 관계자 11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에 오른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도 한자릿수 순위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전남은 575명(선수 356명, 임원 및 관계자 219명)의 선수단이 28개 종목에 참가한다.

광주는 지난해 대회 광주 선수 중 유일하게 4관왕을 달성한 김근수(사격)와 3관왕을 차지한 김영건(탁구), 육상 김하은·이수연·이승훈(가이드러너 이용

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이 없는 한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다관왕이 예상된다.

전국 최강 광주시청 양궁팀의 역대 최다 금메달 수확과 올해 국가대표인 강선희(보치아), 정봉기(수영), 신승리(펜싱)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다. 배드민턴에 출전하는 이정수(전대사대부고 1학년)는 고교생 국가대표로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이 기대된다.

전남은 당구 여자 BIW 정성정이 2년 연속 2관왕에 도전한다. 5년 연속 3관왕을 달성한 육상 이미옥은 원반던지기·창던지기·포환던지기에서 6년 연속 3관왕을 노린다.

전국 최강 실력을 자랑하는 단체종목인 축구(뇌성마비)와 남녀좌식배구는 종목 종합우승이 유력하다.

지난해 전남 순위 상승을 견인했던 골볼, 론볼 등의 선전이 이어진다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남 선수단은 관측했다.

한편, 이번 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역대 최다인 9322명(선수 6022명, 임원 및 관계자 3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1개 종목(선수부 28개, 동호인부 18개)에서 열전을 벌인다. 지난해 3

관왕으로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탁구 윤지유(경기)를 비롯해 각 종목 에이스들이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이번 대회 선수부에는 승마가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고, 동호인부에선 전신 종목으로 스크린 골프가 채택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공감대 확산

출마예정 6명 중 김용주·박찬모·이창현·전갑수·홍성길 5명 단일화 합의  
 화합 통해 광주체육 발전 도모 여론 의식...방안·절차 등 다음달 초 논의

제3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12월15일)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간 후보단일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18일 지역체육계에 따르면 시체육회장 출마예정자인 김용주 축구협회장, 박찬모 육상연맹회장, 이창현 수영연맹회장, 전갑수 배구협회장, 홍성길 배드민턴협회장(이상 가나다순) 등 광주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회장 5명이 이날 광주 한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후보단일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최근 박 회장과 이 회장, 홍 회장 등 3명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김 회장과 전 회장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광

주체육인의 축제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법, 절차 등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출마예정자에게도 이런 내용을 제안, 시체육회장을 합의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재회동할 예정이다.

시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 5명이 후보단일화에 적극 합의한 것은 화합을 통해 광주체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체육계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체육은 직선 회장 시대를 맞아 두 차례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김장준 직선 초대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중도 하차하고, 바통을

이은 이상동 회장은 선거관리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데 이어 개인비리로 대법원에서 직무상실형이 확정되는 등 내홍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체육인들 사이에선 차기 회장 선거는 체육계 화합을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마의사를 밝힌 5개 종목 회장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다자구도가 아닌 1대 1 구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광주시체육회 후보군은 단일화에 합의한 5명과 최갑렬 광산구체육회장이다.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한 체육인은 "출마예정자 5명은 화합으로 광주체육을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해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체육인들이 다함께 노력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광주체육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생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개월 대장정 마무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열린 축구 종목을 마지막으로 3개월 여 진행했던 제15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 배구 등 올림픽 종목과 킥볼, 플로어볼 등 뉴스포츠 종목을 포함해 모두 12종목 경기가 치러졌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체고 오상봉 감독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자상

양학선 6년 지도 등 체육발전 기여

광주체육고등학교 오상봉(사진) 감독이 제60회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18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오 감독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60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지도자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다.

오 감독은 감독교사로 학교에서 20년 재직하는 동안 현장 지도 및 체육 인재 육성, 교육 지도에 기여했다.

그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을 6년 동안 감독교사로 지도했다.

오 감독은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자상은 저 혼자 받은 상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어린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학생선수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묵묵히 학생선수들만 보고 지도하시는 광주시 모든 운동부 감독님, 지도자님과 함께 수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엘리트 선수육성에서 학생선수



인원 감소로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밖 청소년 등을 학생선수로 육성하고 특기를 살려주는 교육적 인프라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2의 양학선과 같은 세계적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권순우, 부산오픈 챌린저 테니스 16강 진출

권순우(84위·당진시청·사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부산오픈 챌린저대회(총상금 15만 9360 달러) 단식 2회전에 올랐다.

권순우는 18일 부산 스포원파크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막시밀리안 노이흐리스트(319위·오스트리아)를 2-0(6-4 6-2)으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 톱 시드를 받은 권순우는 16강에서 알렉산드르 부키치(150위·호주)-모치즈키 신타로(355위·일본)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통산 네 번째 챌린저 대회 단식 우승에 도전한다.

챌린저는 투어보다 한 등급 아래 대회로 일반적으로 단식 세계 랭킹 100~300위 사이 선수들이 출전한다.

2019년 챌린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권순우는 지난해 2월에도 이탈리아 챌린저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남지성(509위·세종시청)도 1회전에서 우치다 가이치(160위·일본)를 2-0(6-3 6-3)으로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아담
- 2관 인생은 아름다워, 전체극장판 판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3관 캐릭터, 정직한 후보2
- 4관 인생은 아름다워, 전체극장판 판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블랙 아담
- 9관 블랙 아담
- 7관 세네카를 캐릭터, 스마일, 나를 죽여줘
- 8관 세네카를 오픈: 천사의 탄생, 미혹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